

# “새 길 찾을 위기 돌파형 리더 필요”

민주 안호영 의원  
도지사 출마 선언

새만금특별자치도  
초광역순환교통망  
24시간 지자실 개방 등  
지역 공약 발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원주·진안·무주·장수)이 22일 오후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시·군 경제통합으로 전북을 확 바꾸겠다”면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이대로 소멸하는 나, 아니면 미래로 전진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전북은 관리가 아니라 담대한 도전으로 새 길을 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지역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며, 매년 1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인구가 8만7,000명이 줄어 180만 명이 무너지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전북도는 위기 돌파형이 아닌 관리형 리더십으로 도정을 이끌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이 뒤쳐졌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 공약과 관련해 먼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전북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국제적인 투자진흥지구로 만들고, R&D산업, 관광산업, 농식품 가공산업 기업을 유치해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 의원은 초광역순환교통망 구축과 새만금~군산~익산~전주를 연결하는 전철 개통도 공약했다. 안 의원은 “전북철시대의 막을 올리겠다”며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와 첨단 환승센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균형과 상생의 발전을 위한 전북지역 경제융합체 구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주환경 조성, ▲전북을 문화 수도로 조성, ▲도민이 도시사민 섬김의 도정 실현 등을 공약했다. 안 의원은 현 도정과 관련해 “전북이 지금 지방소멸의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있다. 지난 8년간 만들어왔다”며 “전북이 가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의 절박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 어렵게 됐다.

민주당과 국회의 정치력이 중요해졌다”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면 국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해내겠다. 필요한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겠다”며 “침체되고, 답답한 전북도에 일을 좀 내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송치현 전 전북도지사, 김윤덕 의원, 김관영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학교에서의 생태환경교육 위상 강화”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점진적으로 정규교육과정 편성 사회적 실천역량 강화·생태환경교육센터 설치 등 제시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 날 및 세계 물의 날 및 세계 물의 날 맞아 학교에서의 생태 환경교육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이다. 천 후보는 “생태·환경교육이 특별한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및 세계 물의 날 맞아 학교에서의 생태 환경교육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생태환경교육센터 설치 등과 함께 지역 거점별로 생태·환경교육 센터를 설치해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환경·생태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어서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장소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지만, 생태·환경 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면서, 생태환경교육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사회적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그는 “단순체험 위주의 생태·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비롯해 이를 가꾸고 지키는 실천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이 학생의 개인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

과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교육청,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 협업해 지역 거점별로 생태·환경교육 센터를 설치해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환경·생태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번째로는 생물다양성 지킴이 학교 지정이다. 천 후보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지킴이 학교 지정을 통해 학교 인근 생태환경을 학생 스스로 보호하면서 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 강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청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이 먼저 혁신을”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교내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등 제시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이 먼저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교육 수요가 백신접종, 대면활동 확대 등에 따라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품 공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며,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통계청 2021년 조사에서 전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

로 전남 66.5%, 충남 67.2%에 비해 높았고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2,000원으로 전년, 충남, 강원, 경북, 경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초등학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5천원, 중학생은 44만원, 고등학생은 51만천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명품 공교육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성적향상 중심의 정책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예비후보는 ▲교내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권역별 학교복합화사업에 24시간 열린 학습공간 설치 ▲지역 전문가 그룹 연계학습 ▲미래첨단 6대 기술 체험센터 설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 ▲공립 지원 학교 설립 ▲비인기 대안학교 전문 강화 ▲음악·미술·체육·인문사회·발명 영재교육 등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정은성 기자

# “남원다운 남원 만들 것”

윤승호 전 남원시장  
시장 예비후보 등록  
25일 정책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남원다운 남원 만들기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대선이 끝났지만 다양한 정치적 후유증이 당내에 산재해 있고, 민심 또한 상당한 피로감이 쌓여 있다”며 “민선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와 열정을 모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입증하고,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지역사회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는 것이 다반사라며 “선거기간 동안 상대방을 헐뜯지 않고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최퇴하고 있는 남원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로드맵과 부실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이라며 “그동안 남원을 지키며 살아온 경험과 역량,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더해 남원다운 남원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남원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7대 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완주 아동·청소년 황금시대 열 것”

‘완주군수 출마 예정’ 두세훈 도의원  
“청소년 교육수당·아동수당 시즌 2 추진”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완주의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완주 아동·청소년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5년간 완주군의 인구수가 약 5%정도 감소한 것에 비해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809명에서 2020년 416명으로 약 50% 감소했고, 학생 수는 2021년 9,952명에서 2017년 1만2,189명으로 약 18% 감소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36%(523명), 초등학교는 12%(631명), 중·고등학교는 36%(1,039명)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세훈 의원은 “이렇듯 인구감소 비율보다 출생아 및 학생 수의 감소 비율이 큰 것은 완주의 미래에 급격한 인구감소, 학교 통합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다”라며 “이런 인구소멸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획기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세훈 의원은 “민선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 시즌 2를 추진하여 아동수당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출생아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청소년 교육수당을 추진해 학생들의 체험활동기회의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 및 자녀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아동친화 혁신 방안으로 4개월 친환경 거점 놀이터 조성을 확대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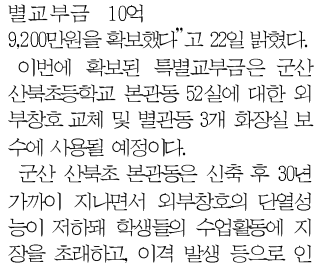
두세훈 의원은 “출산장려 지원 확대를 통해 완주의 인구소멸을 막고 청소년·아동수당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4개월 친환경 거점 놀이터 확대 조성 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완주 아동·청소년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신영대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확보”

군산 산북초 외부장호 교체 등 학습여건 개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군산 시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9,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군산 산북초등학교 본관동 52실에 대한 외부장호 교체 및 별관동 3개 화장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 산북초 본관동은 신축 후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외부장호의 단열성능이 저하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력 발생 등으로 인

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마저 제기돼왔다. 또한 증축 후 20년이 지난 별관동 역시 화장실 배관 부식에 따른 누수와 악취 발생은 물론 세면대 변기, 문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위생과 안전상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의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군산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농어업상생발전포럼 출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회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위원장 정운천)가 해산되고, 지난 21일 ‘농어업상생발전포럼’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운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회 산대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농림축산·해양수산 각 분야별 68개 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전문가를 비롯한 8,700여명이 참여해 농어업 단계의 정책협약 체결,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윤석열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 배달업무 종사자 무상 상해보험 지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계약 체결 시 자동 가입, 다칠 경우 보험료 청구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22일 정책발표를 통해 전주에 거주하는 배달업종 종사자들에게 무상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자력으로 가입이 돼 일하다가 다칠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19세 이상 전주주민 중 관련 업체에 등록된 플랫폼노동자로, 사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10회 이상 업무수행 내역만 확인되면 보상한다.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행소니 및 무보험차 1,000만원, 수술비 2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배상책임 1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5,000명 기준으로 연 2~3억원대로 추산된다.

임 출마예정자는 “배달업무 종사자들은 사고위험이 큰데도 이직이 잦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가족 생계도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무상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배달업무 종사자들에게 무상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개 직종 플랫폼노동자들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보험사와 ‘전주 플랫폼 노동자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